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수상작 내용(요약발췌)

□ 대상 3점 (이용자 1, 아이돌보미 1, 종사자 1)

성명, 소속, 제목
내용(요약·발췌)
<p>강으니(이용자), 노원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이 있어줘서 엄마인 나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p>
<p>초등학생 1학년, 6살 두 딸이 있는 나에게 6년 만에 셋째가 생겼다. 아이들에게만 올인할 것인지 엄마의 역할과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함께할 것인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도 도약하고 싶은 욕심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신호 대기 중에 걸린 차 안에서 ‘아이돌봄’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아이돌봄서비스는 내 인생의 조력자이며 동반자가 되었다.</p> <p>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던 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폐업의 위기를 넘겼으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주시니 내 마음이 편하여서 그런지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하였다. 내 삶의 산을 넘고 넘어 제2의 인생을 사는 격이었다. 그랬던 이유에서일까? 넷째 공주님이 찾아온 것이다.</p> <p>나와 아이들에게 은인이 되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는 가족보다 더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다.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네 아이 돌보며 사업하며 살림하며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주위에 모르는 엄마들이 많아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라고 말해 주고, 귀찮지만 신청 방법까지도 설명하고 알려주는 아이돌봄 전도사가 되었다. 나 같은 상황의 가정들이 꼭 도움받고 힘든 육아시기에 함께 산을 넘어 가면 좋겠다.</p>
<p>이현임(아이돌보미), 예산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3년간의 돌봄동행, 시집 장가갈 때까지 돌보고픈 마음’</p>
<p>13년간 매일 달려간 그곳에는 딸이자 친구이며, 애인인 꼬마숙녀 지영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4년 전 처음엔 거리가 너무 멀고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 그 가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천사 같은 미소와 반짝이는 여섯 개의 눈망울이 나를 사로잡아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당시 아이들의 부모님은 맞벌이로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p> <p>4년 세월이 흘러 아이들의 부모님이 사정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지영이와 오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은 엄마, 어느 날은 상담사, 그리고 어느 날은 댄스와 요가 파트너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야 했다. 입학식과 졸업식, 교복 맞추러 갈 때, 운동회, 소풍, 학예활동 등에 바쁘신 지영이 아버님을 대신해 참석하곤 했다.</p>

이젠 지영이도 내 품을 떠나 사춘기 중학생이 되었다. 돌봄 이용이 끝났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곤 한다. 지영이가 말한다. “선생님! 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선생님 같은 돌보미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어요” 이런 지영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럴 때 내가 아이돌보미란 사실이 자랑스럽다. 나의 60년 인생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다.

내 마음 같아서 아이들을 내가 필요로 하면 대학생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도 돌봐주고 싶은 심정이다. “지영이는 선생님과 함께 생활했으니 선생님 딸이야. 아빠와 멋진 오빠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너를 지켜줄 거야. 선생님도 늘 지켜보고 응원해 줄게. 네가 사춘기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그깟 사춘기 녀석! 물러가라고 하자!”

**주연화(종사자), 부산복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우리는 누군가의 빛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의 모든 시작과 관계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어떤 누군가는 그저 궁금해서, 혹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거나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을 두드린다. 과연 그 문 밖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6년째 연계 담당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힘없이 축 처진 목소리, 아무나 상관없으니 선생님만 보내달라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그 이용자는 이후 확실히 밝아진 목소리, 또박또박 말하는 말투로 변화했다. 나지막하게 “많이 힘들었는데, 좋은 선생님 연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전하였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나로 인해 버텼다는 저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을 울리고 있다.

서비스 연계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변화하는 건 비단 이용자와 아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넓힌 선생님도 계셨고, 운동을 시작한 선생님도 계셨다. 퇴직 이후,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 일상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아동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군가에겐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빛이거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거나, 저물었던 인생에 다시금 불을 피우는 작은 불씨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빛이었으며, 그 빛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한,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 우수상 9점 [이용자 5, 아이돌보미 3, 종사자 1]

성명, 소속, 제목
내용(요약·발췌)
권지은(이용자), 안동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다”
<p>‘아! 이제 또 집으로 출근이구나.’라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깊이 살림과 육아를 또 다른 힘든 노동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의 일만으로도 힘든 남편에게까지 원망을 토로하기에 이르렀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성숙한 성인의 면모를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다.</p> <p>큰 아이가 ADHD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선생님은 걱정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이지 말라고 하시며, 잘 클 거라고 확인하시는 모습에 내 마음도 풀어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것은 내 아이를 더 잘 바라보는 엄마가 되어, 더 잘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p> <p>아이는 학교생활에 점점 더 잘 적응해 학급단원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현관문을 춤추며 들어서기도 했다. 좋은 변화는 내게도 있었다. 이전엔 고된 노동과도 같았던 육아를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힘들게만 바라보다가 후회하곤 하였다. 이제 나와 남편은 아이들이 성숙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감을 넘어 어떤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p>
김정란(이용자), 의왕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선생님이 계셔서 숨 쉬며 살아요’
<p>이혼하고 한 달 뒤, 둘째 딸아이가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여린 큰아들을 이모 집에 맡기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1년여 후 나 또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아이들 걱정에 고민하다 예전 맞벌이 시절 이용하던 아이돌봄서비스가 생각났다. 한부모 가정지원 덕분에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서도 걱정이 많았다. 면역 저하 항암 환자가 둘이나 있는 집에 지원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실지...</p> <p>다행히도 와주신다는 선생님이 계셨고, 집에서만 지내며 그리기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와 인형 옷까지 만들어주시며 역할놀이를 해 주시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한글을 익히지 못한 아이를 가르치셨다. 날씨가 좋을 때면 면역이 약한 아이를 위해 놀이터 투어를 다녀주시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는 나를 대신해 아이들 밥을 챙겨주실 때도 식품군까지 고려해 깨끗한 멸균 식을 준비해주시고 간식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챙겨주셨다.</p> <p>아이들에, 아픈 나까지 챙겨가며 늘 따뜻하고 편하게 해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나는 항암에 수술까지 무사히 마치고 회복을 했고, 둘째 아이의 긴 치료도 드디어 끝이 났다. 세상 어떤 사람이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까 싶지만, 우리 집 상황을 모두 아시고도 이렇게 와주신 선생님께 아낌없이 감사한 마음이다. 아이를 위해 선생님을 모셨지만, 정작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받은 건 나였던 것 같다.</p>

**남일현(이용자), 미추홀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31 살 싱글대디를 구한 아이돌봄서비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이제 싱글대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다. 지금의 처지가 지독히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아직 견지도 못하는 딸아이를 위해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다. 육아 서적을 읽고 지역 맘카페에 가입했다. 육아는 **성별이랑 관계없이 아이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맘카페를 통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 3시간 이용을 가정했을 때 계약직 월급으로도 부담되지 않았다.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언제나 그렇듯 육아는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신 육아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싱글대디의 삶에도 잔잔한 변화가 불어오고 있었다.**

어느날 돌봄선생님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닦으시면서 연신 아이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계셨다. 3년간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깊은 애정이 생겨있었다. 그 애정은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모두 해내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줄여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가끔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아빠, 돌보미 선생님이 엄마하면 안돼?" (^.^);**

**최나라(이용자), 세종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

세상에 마주치는 많은 인연 중에 나의 아이를 함께 키우게 된다는 그 인연의 무게는 얼마큼일까. **일하는 싱글맘의 현실에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월급의 많은 부분을 베이비시터에게 드려야 한다고 한숨지을 때쯤 주변 지인에게 추천받게 된 구원줄 같았던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 상황에 변수도 너무 많이 생기던 그때, **아이들의 긴급 연락처에 아빠가 아닌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입하며 조심스럽고 죄송하였지만 흔쾌히 괜찮다 해주신 그 맘이 날 안도하게 한다.** 하루가 엉망이던 날, 날이 서 있고 어김없이 그 날이 **아이들에게 향할 것 같은 날엔 조용히 방패가 되어주시던 순간도 문득 떠오른다.**

부모가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겐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선생님들 통해 하게 되었다.** 금요일의 퇴근길은 정말 지옥 같지만, 괜찮다고 서두르지 말고 오라는 말투엔, 혹여나 일찍 오게 되는 날엔 안방문 닫아주시며 쉬라 하시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로 향하던 그 모습엔, **친정엄마의 따스함이 스며있다. 잠자리에서 아이들을 안고 이야기해주게 되었다. 너희들은 인복이 참 많다고.**

**허다원(이용자), 마포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마마! 포기하지 마!'**

아이를 낳고 나서 나는 삶이 버겁게만 느껴졌고 엄마로서 자질도 능력도 없다고 느껴졌다. 나는 직장에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육아, 살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아이가 10개월이 될 무렵 복직을 위해 **아이 등원을 도와줄 선생님을 찾게 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선순환하게 하는 촉매제였다. 서비스 이용 후 '내 새끼 사랑해'를 연신 외치며 뽀뽀 세례를 퍼붓는 딸바보 엄마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공주병 딸로, 웃음 가득한 단란한 가정의 행복한 아빠로... 이 선순환의 결실로 우리 가족의 둘째 아가가 태어났다.

TV나 뉴스에서 육아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위기가정이 나올 때면 가슴이 참 아프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극단적인 생각도 해 본 나도 주변의 작은 도움만으로도 가정에 행복이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더 많은 위기가정에서 나처럼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길 바란다.

김미경(아이돌보미), 용인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선생님, 우리 아이들 보듯이 잘 키워주세요~'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느새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한지 십 년이 되었다. 처음, 육아 교육 전공의 교수님들과 강사님들로부터 돌보미 양성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실제 돌봄 활동을 시작하자** 처음 마음과 달리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긴장감으로 잠을 설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매년 새로운 이용자와 돌봄 아동들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낯설음과 긴장감은 어느덧 익숙함과 안정감으로 바뀌고**, 네 번의 실습생을 만나 **신입 아이돌보미들의**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을 공감하며, 선배로서 겪었던 나뉠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초보자의 서툰 날개짓을 벗어나, **나뉠 경험과 해마다 받는 보수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로서의 전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추게 되었다.** 사회 구성원인 한 인격체를 양육하는 공동양육자로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생명이 태어나 기저귀와 걸음마를 떼고 한 걸음씩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벅찬 감동과 성취감이** 새로운 인생 3주기를 맞이한 내가 갖는 아이돌보미로서의 행복과 기쁨이 아닐까 싶다.

오경순(아이돌보미), 무주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조금 느려도 괜찮아. 기다려줄게'

무더운 여름, 나는 5학년 여자아이와 4학년 2학년 남자아이를 돌봐야하는 아빠와 3자녀 가정으로 연계되었다. 어렵게 도착한 집 문을 여는 순간 진동하는 역한 냄새, 바닥에 찌든 음식 국물, 주방 테이블엔 먹다 남은 음식들, 쌓여있는 설거지 거리들, 들끓는 파리들, 방엔 두터운 겨울 담요가 그대로 깔려있었다. **아버님 말씀이, "그저 아이들과 있어 주세요. 큰 아이가 생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남자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매일 방문해서 제일 먼저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겼다. **큰아이의 위생교육**을 해주면서 작은 파우치를 주며 생리대를 넣어다니는 거라고 알려줬다. **아빠에게 큰아이 방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렸다.**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위생용품, 학용품, 목욕용품이 지원되었고, 벽지와 장판도 새로 깔게 되었다.**

아빠와 의논하여 수학만이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보자고 결정하고 쉬운 학습지를 정해서 **매일 공부하기로 했다.** 메모리 게임, 알파벳게임, 끝말잇기 등으로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씩 생활습관도 고쳐져 갔다.** 살면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들도 교육이 필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음식이 들어 있는 용기의 뚜껑을 닫아야 하는 것, 자기 전에 양치해야 하는 것, 아침에 세수하고 학교 가는 것 등등...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그래, 애들아! 좀 느려도 괜찮아.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우리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반드시 좋아질 거야!!"

**전태복(아이돌보미), 달성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함께 만든 우리의 보물일지'**

아이와 어머니가 모두 나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에, 나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돌봄 활동에 충실할 수 있었다. **아이돌봄교육에서 배운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맞춤형 양육에 대한 지식들도 도움이 되었다.** 발달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요구에 맞춰 아이와 온몸으로 소통하며 따뜻하게 보살피 주려 애썼다.

육아일지를 쓰면서,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와 독서,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아이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다. **유아교육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흥미가 생겨 유아 특수보육학과에 입학하였고, 57살 늦깎이의 대학생이 되어 아들, 딸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 진기한 체험도 하였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제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이돌보미가 단순히 잠깐 아이를 봐주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존재를 함께 키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출근길에 새록새록 피어오른 행복한 기억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하루, 하루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물 일지임을 잊지 말자고 다짐한다.

**송정일(종사자), 제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구호 요청 하십시오'**

하루에도 많은 전화를 받고 걸고, 시스템으로 연계하며 일을 처리한다. 컴퓨터에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지만 그 과정에는 컴퓨터가 건네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감정이 담겨 있다. 독박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당장 손이 필요하여 센터로 문의 전화를 주셨을 테지만, 지친 마음을 누군가와 얘기하며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한 마디에 처음 통화한 사람이지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한 가정에 아기의 탄생은 축복이고 기쁨이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말 그대로 육아 전쟁이 시작된다. 부모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 기쁨보다 힘겨움이 앞선다. 돌이켜보면 너무 소중한 순간이고 아기들이 다 성장한 후 숨을 좀 돌릴 여유가 생기면 **왜 그때 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힘겨워만 했나 후회하고 아기이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부모들이 아기들과 소중한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경력단절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입사해 자기소개할 때,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직장, 이곳에 뼈를 묻으리라 뜻을 박았다.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으나 나는 온 마음을 다한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여기 내 자리를 지키며 지금도 어디에선가 육아로 힘들어할 모든 부모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 그들의 구호 요청에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

□ 장려상 24점 (이용자 11, 아이돌보미 10, 종사자 3)

성명, 소속, 제목
내용(요약·발췌)
김경옥(이용자), 김포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싱글맘이자 워킹맘, 나도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다’
<p>아이돌보미 선생님과 만남은 싱글맘이자 워킹맘인 내게도 드디어 “아, 나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 아 나도 정말 멋진 커리어를 가진 멋진 엄마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의 시작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하고 전업주부였던 나는 당시 아이들은 첫째가 27개월, 둘째가 8개월이었다.</p> <p><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비용과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였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것은 작년에 제가 시도했던 일 중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p> <p>나는 <출산 양육 장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다들 너무 쉽게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수행하는 일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이 나는 단연코 <아이돌봄사업>이라고 생각한다.</p>
김명선(이용자), 고창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삶을 지탱해 준 아이돌봄서비스”
<p>어느 봄날 오후, 큰아이를 태우고 엄마인 내가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도착을 얼마 남기지 않고 큰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수기를 읽어보고서, 나도 너무 힘들어지면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마음먹게 된 일이 있었다.</p> <p>큰아이는 교통사고 이후, 이전에도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성향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 평소보다 더 격하게 행동하는가 하면, 동생을 때리는 정도가 날로 심해졌다. 나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우울증으로 날로 피폐해져 가기만 했다.</p> <p>큰아이의 문제행동이 좋아지지 않을 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지금 당장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콩나물들이 쑥쑥 자라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매일매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좋은 말로 계속 다듬어주면 결국에는 바르게 자라나니,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은 빙그레 웃음지어 보이셨다.</p> <p>만약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큰아이를 무서운 훈육으로 제압하려 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점점 더 악화되어 아마 돌이킬 수 없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우리 가정에 갑작스레 찾아온 교통사고는 큰 불행 중 하나였지만,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통해 행운으로 바뀌어서 이어갈 수 있었다.</p>

김보희(이용자), 원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햇살 같은 아이들 그리고 햇살을 만들어준 키다리 선생님”

연년생에 쌍둥이. 그렇다, 나는 딸 셋 엄마다. 어느 날, 중고거래하다 만난 아기 엄마에게 우리 집 사정을 얘기하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알려주었다. 갓 100일 된 아이를 선생님께 맡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낯선 사람이 우리집에 와있다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내 몸이 부서지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렇게 센터의 도움으로 선생님들을 만났다.

낮 동안 안 선생님은 둘째를, 한 선생님은 셋째를, 나는 밀린 잠과 남은 살림 그리고 하원 하는 첫째를 담당했다. 완전체가 되었다. 환장의 집에서 환상의 집으로 탈바꿈되면서 점차 안정화 되었다. 한 달, 두 달을 보내며 점점 아이가 영상을 멍하게 바라보던 눈빛에서 아이 돌보미 선생님과 재밌게 놀이하는 기대감 가득찬 눈빛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 달 만에 언어가 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언어치료심리센터에서는 아이의 언어가 많이 늘었다며 이제는 그만 다녀도 되겠다고 했다. 그 뒤로 첫째의 언어는 폭발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선생님은 지금까지 첫째의 좋은 친구가 되어 엄마로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박미현(이용자), 울주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You are my Rock!(너는 나의 바위야!)’

미국인 남편과 보금자리를 만든 지 6년 차가 지나도 우리 부부는 자녀계획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그렇듯 아이가 생기면 수반되는 경제적 상황, 당연히 찾아올 육아 공백 등의 막연함 때문이었다. 그러다 우리는 언제 까지나 준비를 명목으로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임신을 결심했다.

출산 후 죄어오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다스리고 100일이 될 무렵 어린이집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이가 5개월부터는 분리불안이 심각해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 안정적으로 케어하고자 찾던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사설보다는 믿음이 갔고 선생님들 교육시스템, 지속적인 모니터링, 아동학대에 기민한 점 등이 마음에 들었다. 더구나 거기다 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된다! 우리 가족이 안정을 찾아가고 우리 인생에 없을 거라 단언했던 둘째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다 꺾인 줄로 알았던 나의 조금은 무식한 투쟁정신이 “아이돌봄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면 둘째도 못 할 게 없지 않은가.” 하고 피어났기 때문이다.

박수연(이용자), 부산강서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한 아이를 카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첫째 아이 때는 몇 개월씩 양가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봐주시기도 했고, 갑작스레 주말부부가 된 후에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4살 터울인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 때의 상황과 같이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둘째 아이가 3살 때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고, 그 아이가 지금 8살이 되었다. 늘 죄책감을 등에 지고 살아왔지만, 옆에서 토닥여주고 짐을 덜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셨기에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폭은 더 넓어졌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8살이 되어 입학할 하게 되면 많은 워킹맘들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엄마의 꿈과 성장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체계적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니, 안심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라고 말이다.**

**신서영(이용자), 연제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위기 탈출'**

매월 아이돌봄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스케줄 입력을 하면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하고 외치게 된다. 저출산이 전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 위기를 겪어 본 사람이라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 더 귀하고 감사하다.

노산에 둘째를 낳고 큰애까지 케어하다보니,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산후우울증을 진단받았고, 감정조절 능력이 망가져버렸다. 그러던 중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죽어가던 화분에 사랑과 정성으로 물을 주듯 나를 살려냈다. 이제 더 이상 자는 아이에게 옷을 입혀 열리지도 않은 어린이집 앞에서 당직 선생님을 기다리는 일이 없다. 급하게 뛰다 출근길에 넘어질 일도, 어린이집 앞에서 헉헉 거리고 벨을 누를 일도 이젠 없다. 그리고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젊을 때는 살기 바빠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못 대해 준 것 같아 아이돌보미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더 공부하게 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황금기니까 애들 잘 키워 봅시다. 내가 도울게요." 어떻게 감동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육아 동지가 되어 노를 잘 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유(이용자), 창원시마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유방암을 함께 극복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

미운 4살이었던 첫째와 만삭인 상태로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나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동생을 낳으러 간 엄마가 없는 집에서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은 물론이고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엄마가 되어 주셨다. 둘째를 데리고 집으로 간 날, 서툴지만 전보다 감정 표현을 하고, 발음은 좋지 않았지만 말이 많이 늘어있었다. 전보다 먹는 음식도 더 다양해져 있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선생님이 첫째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을지, 얼마나 큰 노력과 고난이 있었을지 엄마인 나는 다 알 수 있었다.

둘째가 신생아 딱지를 뗄 즈음, 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애들 아빠는 교대근무를 하는 직종에 있어 갑자기 시간표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에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5박6일 수술일정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수술 전날 선생님은 말을 잊지 못하시고 눈물을 보이셨다. "이번에도 선생님 믿고 갔다 올게요." 선생님은 기꺼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며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오라고 하셨다.

첫째가 만 36개월이 되도록 기저귀를 못 떼고 있으니 조바심이 났었다. 누적되는 항암치료로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마음은 급해졌다. 그러나 첫 번째 산이라고 생각했던 배변 훈련을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다. 항암 후 웨이빙을 한 내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시던 선생님. **“아픈 엄마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시고 내 손주처럼 보살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민주(이용자), 구로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의 오랜 꿈, 무조건 셋!’**

둘째가 돌 무렵 내 체력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이 서비스 덕분에 **가족의 평화**가 지켜졌고, 출산과 조리 모두 걱정 없이 할 수 있었고 셋째도 **무사히 태어났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아이 셋을 데리고 걷는 모습에 **“애국자네, 애국자야. 상줘야 허~”**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받을 일도 아니지만 진짜 누가 내게 상을 준다면 **이 공을 아이돌봄서비스에게 돌리고 싶다.**

남편과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분 돌보미 선생님께서 마치 **본인들 일처럼** 생각해주시고, **아이들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지 겪어본 나로서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용자와 돌보미 선생님 간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하여 **모니터링도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도 확인해 주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같이 비빌 언덕이 없는** **부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조윤희(이용자), 영등포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7년의 동행, 엄마의 마음케어 서비스’**

바쁜 아침 7시에 출근준비와 아이들의 식사준비를 하노라면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밝은 미소로 들어오시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한창 아이들이 어릴 때, 그야말로 도둑만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과 눈 맞춰 반응해줄 수 있는 누구라도 집에 오는 것이 반가운 마음이었다.

전투와도 같은 일상, 밥 먹이고 재우고 아이들을 보내고 데려오는 반복되는 매일 속에 **소진되었다고 느껴질 때면, 주말 긴급돌봄을 이용하기도 했다.** 짧은 횟수를 와주신 선생님들조차도 포스트잇에 무슨 놀이와 일과를 보냈는지 기록하여 붙여주시기도 했다. 한분 한분의 강점은 다를지라도, 각자의 최선과 강점으로 아이들을 케어해 주신다는 것에 믿음을 갖고 **어떤 분이 오시든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겨드릴 수 있었다.**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연계해주시는 가족센터 담당자분과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은 높아졌다. 온라인시스템도 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되어 지금은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적극적으로 주변 엄마들에게 권유하기도 한다. 급할 때는 한나절 만에도 연계해주실 때면 정말 적극적으로 애써주신다는 걸 느낀다.

최연희(이용자), 청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우리는 매일 점심 같이 먹는 사이”

임신했을 때 청주보건소를 방문하였는데 책상 앞에 아이돌봄서비스 팸플릿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갓 돌 지난 첫째 아이가 있는데 임신한 아이는 쌍둥이였기 때문이다. 난이도 최상인 육아를 맡은 돌보미 선생님은 나보다 아이의 기질과 특성을 잘 살펴봐 주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과 반응도 잘 전달해주었다.

선생님과 점심시간은 정말 끝같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집에서 오전,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점심도 함께 먹었다. 나 혼자 있었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점심을 제대로 챙겨먹지 않았을 것 같다. 나는 초보엄마이기에 할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이었지만 선생님은 워낙 음식을 맛있게 잘 하셔서 선생님이 가져오신 도시락 반찬을 많이 빼앗아 먹었다.(^.^);; 선생님의 반찬을 살펴보고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음식이 많아졌다~

남편은 처음 서비스를 신청할 땐 집 안에 다른 삶이 온다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가족같이 느껴진다고 한다.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물어보니, 나에게 자유시간을 주겠다고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봤었던 것이라고 한다. 남편은 어색해서 걱정을 하였는데 선생님이 아이들과 놀이하는 노하우를 잘 가르쳐 주어서 남편 또한 이제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현재경(이용자), 연수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다시 가슴 뛰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는 공부나 일과는 다르게 노력한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육아에 지친 몸으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때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다.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슬펐다. “지금 이 마음을 아이가 느끼고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 “첫날이라도 아이가 조금 순하게 있어 주면 돌봐주시겠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둘째 아이는 평소보다 더 악을 쓰며 울었고, 다음 날부터 오지 않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될 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집을 나서면서 처음 집에 들어 오실 때와 같이 넘치는 에너지로 웃으며 “내일 배요.”라고 하셨다. “아, 이분은 나를 살려 주실 분이구나.”

선생님이 집에 오면 둘째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있다가도 별떡 일어나 선생님께 달려가 안긴다. 선생님의 지지에 힘입어 회사에 출근하던 날, 직장 상사의 인사말 속에서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나를 살려주신 것뿐 아니라, 내 이름도 찾아주셨다는 것을. “엄마’라는 이름을 마음에 품고 내 ‘이름’으로 당당하고 벅찬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저를 다시 제 이름으로 가슴 뛰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자(아이돌보미), 함양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삼 남매 아빠는 업무 중에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새 내 휴대폰은 서비스 지원 시간과는 상관없이 삼 남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선생님들이 크고 작은 일로 급할 때 찾는 전용 폰 이상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6살에는 기저귀를 하지 않게 된 막내가 "선생님 나 또 **황금똥 누었어요, 참 잘했죠?**" 하면서 자신을 대견해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기특했다.** 둘째가 기분이 좋을 때마다 **하트를 보내는 걸 볼 때, 이 아이가 '나는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라는 메시지로 느껴졌을 때는 가슴이 시려오고 마음이 아팠다.

등교하는 것만도 다행이었던 첫째가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많이 밝아졌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돌보미 선생님 도움으로 아이가 학교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적극적인 학생이 되었다."**는 감사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돌보미로서 역할이 헛되지 않고 인정과 보상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삼 남매가 바르게 자라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승경(아이돌보미), 서초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향기 없는 여자로 생활한지 7년차다.'**

어느 가정을 가던지 여전히 향기에 대해 긴장한다. 돌보미를 하기 전 직장을 다닐 때 타인을 배려해 기분 좋은 향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좋은 냄새도 안된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향기 없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다.

까맣고 큰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던 **5개월 된 사내아이와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한다. 방에 들어서자 방금 갠 얼굴로 어리둥절하게 나를 쳐다보는 것 아닌가? **기저귀를 여니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두 다리를 주욱 뻗는데 내 가슴이 '쿵'하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손가락을 펴며 커다란 기지개를 펴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나는 사랑 한 조각을 아이와 나누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가진 사랑을 온 마음으로 내게 주었다.

나이가 많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내 모습이 젊은이들 눈에 어찌 보일까? 다 자란 교회 청년들이 내 앞에서 인사로 아름답다고 해주는 말도 사실이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 신앙의 유산으로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나를 아이들에게 보낸 것 같다. **아침마다 설레고 오후에는 다시 한 번 샤워를 하며 내게 와 준 아이들을 맞는다. 아이들이 잘 자라 어른이 되어 이 사회의 단단한 기반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도 정성껏 아이와 눈을 맞추고 말한다.**

김주리(아이돌보미), 청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두 시간의 큰 힘, 변화'

“엄마는 요즘 일하는 거야?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 전에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잖아?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아이돌보미 선생님 선택 진짜 잘한 것 같아.”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나의 삶은 전과 많이 달라져 일상이 즐겁고 행복하다.

내 자녀들을 15년 이상 키우면서 아이들의 소중함과 내게 주는 행복을 잘 알고 있어 돌보미로서의 날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못 낳겠다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큰 힘이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도 여러모로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양육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각 가정마다 행복함을 느끼고 안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MZ세대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형제와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의 역할 또한 매우 소중함을 느끼며 무한한 책임감 또한 갖게 된다.

신재연(아이돌보미), 울산 남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줌마? 선생님!'

아이돌보미에 합격해 처음 집에 방문한 첫날, 어머니의 첫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었다. 아! ‘선생님’.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달콤한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다. 그래, 오늘부터 나는 이 아이의 선생님인 거야.... 그렇게 나는 하루아침에 평범한 아줌마에서 ‘선생님’이 되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쉰 저녁 공기가 괜히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저녁밥을 지으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다.

서비스 마지막 날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자기를 만나러 올 거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어떡해요. 아쉬워서.... 아이가 항상 선생님 얘기 많이 했어요. 재밌고 똑똑한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말에 괜히 내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가 나중에도 날 재밌고 똑똑한 선생님이었다고 기억해줄까? 아마 내 기억 속에 그 아이는 처음으로 날 선생님이라 불러주었던 아이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실 아침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다 저녁밥을 짓는 일상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렇지만 오후 세 시가 되면 나는 선생님이로 변신한다. 평범한 소시민인 척 살다가 위험이 닥쳐오면 사람들을 구해내고는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영화 속의 히어로처럼, 평범한 아줌마로 살다가 오후 세 시만 되면 선생님이 되어 아이를 돌보다 오후 6시가 되면 다시 평범한 아줌마로 돌아오는 내가 꼭 그 히어로 같다는 우스운 생각도 들곤 한다. (^.^)/

양정임(아이돌보미), 제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의 아이돌보미 생활'

지난 겨울에는 제주도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소형차량이 전부 통제되었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럴 때면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별판을 최대한 움츠린 자세로 폭풍처럼 쏟아지는 눈을 뚫고 버스정거장까지 가면 갑자기 추위와 공포가 밀려온다. 한참을 기다리니 저 멀리 불빛이 보이고, 구세주처럼 나타난 버스에 올라타면 따뜻함과 안도감을 찾을 수 있어 너무 다행스럽고 고맙기도 하였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출근길이 즐거운 것은 분명 아이들이 보내오는 티 없는 애정 덕분이다. 출근해서 초인종 누르면 도도도 와서 안겨오고, 화장실이라도 갈라 치면 어디 멀리 가버리는가 싶어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아직 나갈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눈치채고 찡얼거린다. 본격적으로 외투를 손에 잡고 입으니 결국 옆드려 얼굴을 푹 숙이고 대성통곡이 터진다.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은 단순히 생계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출발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진심으로 대하면 항상 진심으로 보답해주기에 내가 돌 봐준 여러 아이들에게 항상 부모 조부모에 버금가는 신뢰와 애정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도 난 아이들과 시선을 맞추고 미소를 나누는 순간마다 지고한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준비한다.

오미영(아이돌보미), 창원시 진해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 제 2의 인생을 꿈꾸며'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나만 뒤쳐져 있다는 생각에 공허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았었는데 가끔씩 슬펐다. 가족들한테도 땀땀하고 보람 있는 내 일이 필요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실히 되고 싶었다. 누군가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 추천으로 아이돌봄 일을 알게 되었다.

오직 이용자가 원하는 육아방식대로 따라가면서 맞추려 한다.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고 동요도 메들리로 불러본다. 동요 부르는 것도 즐겁다. 안 좋은 점은 너무 부르면 목에서 쇠소리가 난다. (^0^) 나중에는 유튜브를 보며 울동도 익혔다. 애기들한테 따라 해보고 반응을 살핀다. 처음에는 이용자가 방에 들어가셨을 때만 울동을 하다가 이제는 이용자가 계셔도 한다. (^_^) 이용자도 그런 나를 쳐다보면서 웃어준다.

돌보미 일의 장점은 다양한 연령대 놀이와 특징을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가정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갱년기는 아이돌봄 일을 통해 우울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즐거워하고 잘할 수 있는 내 일이 있음에 항상 감사하자고 오늘도 다짐해본다.

**이수자(아이돌보미), 칠곡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평생교육을 실현시키는 아이돌봄서비스'**

아버님 면담 때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에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성냥팔이 소녀** 동화책을 읽고 나서 아이는 **'소녀가 돌아가신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너무 덩덤히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울음을 삼켰다.**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안아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도 속상했다. **"괜찮다면 선생님이 집에서는 엄마가 되어줄게."**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아이다운 말을 한다.

아버님과 나는 공동양육자로서 함께 고민을 상담하며 아이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아이의 2차 성장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한부모 가정이라 행여나 사회나 아이들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늘 아이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지대하며 고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인간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오늘도 나는 노력한다.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부모님께도 내가 모르는 사회적 지식과 생활의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으며, 센터의 끊임없는 재교육도 우리를 일상적 나태함에서 일깨워 주는 소중한 스승들이다. **귀한 국가적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미력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보물을 만나러 가보자!

**조영숙(아이돌보미), 시흥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날마다 좋은 날'**

4년 동안 돌봄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도 겪었다. 여섯 살이던 막내의 급작스러운 경기(驚氣)로 한밤중에 긴급하게 호출되기도 했다. 몸이 축 처진 아이를 안고 겁에 질려 응급실에 가는 부모를 대신해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진정시키고 함께 누워 잠을 재웠다.

아이 아빠가 부친상을 당해 경황이 없을 때는 아이들 걱정 없이 장례를 치르도록 힘을 보탤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이용자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수고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동동거리며 바쁘게 사는 아이 엄마를 보면 안쓰러움에 **친정엄마** 같은 든든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그녀의 고단한 모습에서 맞벌이하며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겼던 과거의 나와 내 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그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사람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 건강한 사람과의 애착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익한 사람을 통해 공감 능력, 정의감 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돌보미로서의 **나의 존재가 그랬으면 좋겠다.**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허현자(아이돌보미), 고양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꼬마 산책자와 동네 한 바퀴'

이런저런 체면과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훨씬 더 마음이 즐겁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해도 위선이 없으며, 두렵거나 무서우면 울고, 소리 지르고, 좋아하면 그저 달려가 품에 안길 뿐이다. 불 화산을 뿜다가도 금방 헤헤거리고 뒤끝 없이 잊어버린다. 어른들은 과거 이야기에 빠져있지만, **아이들은 현재를 탐닉하고 미래에 산다. 주위의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날이 '오늘 처음'이다.**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은, **아이와 함께 걷는 길은 온통 기대에 부푼다. 누가, 무엇이 그 벅찬 충만함, 그리고 행복함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아마도 나만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슬며시 흘러나오는 모양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환해졌다고, 혈색도 좋아지고 활기가 넘친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자랑질'을 한다. "그럼요, 매일 천사들의 웃음과 순전한 사랑을 원하는 눈빛과 맑은 영혼들을 만나는 일보다 좋은 일이 있나요?" 나는 **네 살배기 꼬마, 내 작은 스승과 매일 걷는다.**

항점숙(아이돌보미), 전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저는 아이돌보미입니다'

"친할머니세요?" "저는 아이돌보미입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서 할머니인 줄 알았다며 아이돌보미 이용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 아이와 함께 하는 동안 놀이터, 엘리베이터, 하원대기 장소 등 어디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의 활동 모습이 주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니, 소신껏 일하면서 자신 있게 신분을 밝힌다.**

퇴근시간도 내게는 행복한 시간이다. 작은 아이가 묻는다. "선생님 집에 가서 뭐해?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선생님 집에는 동화책도 없어서 심심하니까 '코 잠' 하고 와서 내일도 신나게 놀아준다고 달랜다. 어느새 두 아이가 **현관에 서서 입을 내밀며 뽀뽀를 하겠다고 기다린다. 허리를 굽혀 볼을 내밀면 내 두 볼이 축축히 젖는다.** 다시 하이파이브를 하며 내일 또 보기로 하니, 아이들은 윙크와 손하트를 하며 나를 배웅한다.

보통 직장인들이 정년퇴직을 할 나이인데 **내가 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함께 장난감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함께 웃고 즐긴다.** 꼭 이겨야 만족하는 아이들의 승부욕을 다독이기 위해 게임에서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하는 것도 나의 몫이다. 나는 **미래 나라의 기둥들을 돌보며 동심에 젖어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이다.**

송지연(종사자), 대덕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양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양육을 위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간다니!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양육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양육 환경이 있다면 그 공간은 단연 '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각종 연구와 논문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고 수많은 양육 기관들이 집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모방하지 않는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만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하고 쉬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나에게, 그저 집과 같은 분위기를 흉내 내는 수준이 아닌 실제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도움을 제공한다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진실로 아이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감동을 주었다.**

현장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생님과 이용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고 연구했던 시간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용자 가정과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소통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숙자(종사자), 광산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 또한 돌봄의 등불이 되고싶다'

다급한 아이돌보미 선생님 전화였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남자아이 세 명이었다. "큰아이는 방바닥에 오줌 싸고, 둘째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어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고, 셋째는 붕붕 차 타고 여기저기 휘젓고 있어요." 선생님을 안정시키고 모니터링 담당자와 나는 바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이마 위에 땀방울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극복하자고 했다.

아버님과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노력으로 차츰 아이들의 성격도 온순하게 변했고 잘 따라주기 시작했다. 이 가정의 경우엔, 나와 선생님이 어려운 가정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서로 의논하고, 이를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행동으로 옮겼기에 성공했다고 보았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일에 보람의 맛을 느끼고 저항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한다. 또한 본인의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채운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돌봄) 정책은 시설 보육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상황별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정서 및 가족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빛을 밝혀 주고 있는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더욱 성장할 것이며, 나 또한 이 분야에 귀한 돌봄의 등불이 되고 싶다.

윤은미(종사자), 강동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 삶의 멘토가 되어주신 두 분의 아이돌보미 선생님'

"와, 신기해요~" 신규 아이돌보미 열네 분이 일제히 의자에서 일어나 직접 만든 색종이 프로펠러를 높이 던졌을 때, 뱅글뱅글 돌아가며 떨어지는 모습에 신기해하면서 즐거워하셨다. 오늘은 신규 돌보미 선생님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다.

오늘 멘토링을 해주시는 전○○, 송○○ 선생님 두 분은 특별하다. 단순한 경력보다 두 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하고 존경하면서, 나는 내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직업의식과 내공들이 나를 감동시켰고,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진정한 경외심이 든다.

"아이와 눈맞춤을 하고 아이에게 엉덩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르치는 말보다 귓속말로 할 때 아이들이 더 집중한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줬다기보다 아이들을 진정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깊은 노하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멘티 선생님도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마칠 때는 배울 점이 많았고, 본인도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셔서 또 한 번 감동하였다. 두 분은 강동구 아이돌보미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멘토이시다.